

신축년 새해는 솔직해지기를 기원한다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2020년은 수많은 갈등과 코로나로 고통스러웠다. 원자력계는 탈원전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았기에 더욱 우울한 한해였던 것 같다. 후쿠시마후 위험에 대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같이 우리 국민과 시스템이 고통에 얼마나 견디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환경 문제에서 더 나아가 산업과 무역의 패러다임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의 그린뉴딜이 그렇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에 탄소중립을 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 탄소중립2050을 선언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전기차, 4차산업, 수소경제 등 대표적인 저탄소화는 전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력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전기 생산의 저탄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반핵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의 민주당까지 50여년 만에 원자력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석탄, 가스, 석유가 풍부함에도 2035년까지 신재생과 원자력을 중심으로 전력부분을 먼저 저탄소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택이므로 타산지적으로 삼아야한다.

우리는 에너지분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원전은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배제했고 석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배제했고 전기수요는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축소 전망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신재생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가스는 비싸고 이산화탄소가 석탄의 반이나 나와도 신재생 백업을 위해 확대한다. 에너지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지금은 신재생이 목적이 되어 에너지정책의 철학이 실종되었다. 그러다가 탄소중립 2050이 나타났다.

탄소중립2050은 깨끗한 에너지를 씹시다는 캠페인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정책이다. 정책이므로 기술적인 실현 방안 뿐만 아니라 효과와 효율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에서 탄소중립2050까지 고려하면 가스도 쓰지 못할거니 신재생으로만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달면 신재생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헛된 순박한 꿈이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릇된 목적을 가진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

었다고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이다.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가 올라서이고 두 중이 힘든 것은 경영을 잘못해서이고 원전가동율이 내려간 것은 안전성문제이고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난 것은 전 정부 때문이고 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탈원전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정부는 그동안 강변하였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탈원전도 영향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뢰받는 길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엉뚱하게 경제성 때문이라 몰고 가다 무리한 불법적 사건이 된 것이다.

솔직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야 해결도 할 수 있다. 해결을 잘 하려면 옵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많아야 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백년대계를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여 미래의 옵션을 살리는 것이 꼬인 문제를 푸는 첫 단추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더 솔직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아름답게 하나하나씩 풀어지기를 기원한다.

KNIF